



곡성 문화

2016년(단기 4349년) 12월 31일 / 6호

발행인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 빙신호 ☎ 061-362-0890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이 되어주신
문화원 가족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와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하여 -



왜? 우리는 2016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에 나라 안 밖에서 정말 어지럽고 어두운 혼돈의 시대를 겪어야만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에

는 어둠속에서 새벽을 일깨우는 닭의 표상을 통하여 우리 모두 도덕적 불감증에서 깨어나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레스, 닭의 벼슬)만큼 도덕적 의무(오블리제, 달걀 노른자)를 다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귀감이 되는 지도자와 어른들이 많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요, 애국심과 도덕적 책무성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 삼강오륜의 군위신강(5호)에 이어 군신유의(君臣有義)에 대한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군신유의(君臣有義)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예(禮)와 성실(誠實)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공이 물었다. 군이 신하를 부리고 신이 임금을 섬기는 데는 어떠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한다. 군은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성실로써 섬깁니다(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 논어 권3).”

이처럼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의리(義理)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군신유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여 “신하는 무조건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고 단정하는 사

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공자는 이런 군주를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제후 섭공(葉公)이 공자에게 자신의 통치 수준을 자랑하다가 공자에게 편찬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군신유의(君臣有義)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예(禮)와 성실(誠實)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지 목숨을 바치는 맹목적 복종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서도 군위신강(君爲臣綱)을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군주(君主)는 신하(臣下)의 버리(요강要綱, 대강大綱, 본보기)가 되고, 임금은 신하의 버릇 줄(대강大綱, 중심, 본보기)이니 서로 받들고 섬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평화, 행복을 위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의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국정은 마비되고 나라의 주권자들인 우리 국민들은 엉뚱한 속에서도 손에 손잡고 촛불을 밝혀야만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군(君)과 신(臣)을 임금이 아니라 국가, 사회, 어느 단체와의 관계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격을 갖게 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위계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역할을 다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교훈이 절실한 때입니다. 새해 2017년! 하루빨리 국가가 안정되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글/곡성문화원장 고광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국내적으로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곡성문화원은 반세기 동안 지역문화 창달에 큰 몫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문화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의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회원이 적극 참여하고, 문화예술 분야 지식을 넓히는데 꾸준히 기여하여 문화원 가족과 지역민의 교양을 넓히고 안목을 키우는데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곡성문화원은 “효”를 주제로 한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및 “여성극단 곡성”, “할머니 인형극단 민들레” 활동 등 곡성을 효의 상징인 심청고을로 자리매김하는 데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지역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역민의 칭찬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뿌리인 향교 서원의 발자취와 체험학습을 통한 산지식을 습득시키는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학생들의 애향심 배양과 향토사 학습에 크게 기여하여 못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2017년 새해에도 보다 더 좋은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글/ (現)곡조단군곡성송모회 대표이사, (前)곡성문화원 원장 김학근



유근기 곡성군수,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선정’

- 전국단체장 4명 수상, 전남 기초단체장 중예선 유일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이 주관하는 ‘2016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유근기 곡성군수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자치경영에 탁월한 업적과 지방자치 선진화 및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차별화된 성과를 올린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제13기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 202명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 1,191명 등 총 1,422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광역 시·도지사 1명,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4명이 선정됐다.

유근기 군수는 곡성군 사상 최초 2개의 공기업 유치, 효도택시 및 천원버스 운행, 귀농·귀촌 인구유입, 섬진강침실

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전남 최초 농업인재활센터 개소, 대항강출렁다리 개통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 군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올봄 개봉한 영화 ‘곡성(哭聲)’의 흥행과 함께 곡성군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점이 크게 부각됐다. 샤머니즘·오컬트 등 괴기스러운 내용을 담은 영화 ‘곡성’의 개봉으로 지역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여론에 유근기 군수는 긍정의 역할상이 담긴 ‘곡성(哭聲)과 다른 곡성(谷城)이야기’를 신문에 기고했고, 이 기고문이 SNS와 신문·방송 등 언론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곡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는 ‘제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역대급 흥행으로 이어졌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읍내파촛소·동산낚시터·외지인의집·청림문구사·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영화촬영지를 찾고 있다. 유 군수는 지난 7월에는 한

곡소비자포럼과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대상 정치인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9월에는 전북 임실에서 열린 제54회 소총·사선문화제에서 ‘소총·사선문화상 모범공직자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수상소감

유근기 군수는 “취임 초부터 강조한 약행소선(若烹小鮮)의 역지로 강요하지 않는 ‘무위(無爲)의 리더십’의 결과이며, 개인의 영광이 아닌 3만여 곡성군민과 경향 각지의 향우, 그리고 600여 공직자들이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다.” 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희망곡성’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글/곡성군청 홍보팀장 박광천

충·효 인성교육 선구자! 평생을 향토문화 발전에 공헌하신 **다은 한영호** 선생

‘제21회 전남 향토문화상 수상’



국사편찬 위원
다은 **한영호** 선생

긴 세월 남다른 열정으로 한 길을 걸어 오시며 향토문화의 발전에 지극하신 다은 한영호 선생은 전남 목포사범학교 출신 교사로 봉직(奉職)하면서 1970년 후반에 불가(佛家)의 참선법을 교육현장에 접목시킨 시범수업 발표로 본도 교육감상을 수상하고, 전남교육(27호)의 연재활동을 전개하여, ‘태극기 역사와 제작 연대’ 등 (문교 1975년관보)을 바로잡고, 문태고교에 재직시 소학(小學) 예절교과서를 한글로 제4판까지 출간 충효인성교육에 힘썼다.

선생은 1985년 명예퇴직하여 무안군 일로면의 선산아래 ‘천막 한문교실’을 열어 열성적인 학생지도(목포 MBC 방영)로 농협조합장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1989년에 곡성에 정착한 선생은 ‘함평천기 호남가’ 노래말 정리와 호남가 따라 부르기용 음반을 제작, 호남 전역에 배포함으로써 애향



심을 불어 넣어, KBS 6시 내 고향(2000. 1. 25)에 특집 방영되고, 평화방송 및 조선일보 등 메스컴을 탔다. 특히 2001년부터 ‘호남가 보급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명창 ‘박계향씨 호남가’ C·D를 자비로 제

작하여 애향심과 희망을 불어 넣는데 획기적인 활동에 함평군수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분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2008년 곡성·구례 초·중 19개교 변천사 자료와 영상을 제작 발표하였으며,

2011년 천부경을 발간하여 단군사상 바로알기 활동도 자비로 전개하였다. 선생은 항상 어려운 여건에도 늘 긍정적인 삶 자체가 진한 감동이며 탁월한 2세교육의 능력이 존경스럽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 윤리와 행복지수에 ‘행복은 느낌이다.’의 붓글씨 및 해설서 제작에 항상 가산 탕진도 마다않고 ‘홍익인간 이념의 가정운동’ 교재 10,000부를 자비로 제작 전국각지에 배포하는 등 지극한 향토사업 활동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감은 오래오래 귀감이 되리라 믿는다.

글/ 곡성문화원 이사 김재걸

2016 곡성효문화상 수상자

곡성고 김세진 학생 연세대학교 합격



청각장애를 지니고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위해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도 꿋꿋하고 당차게 긍정적인 생각과 남다른 효성으로 제1회 곡성효문화상을 수상한 곡성고등학교

3학년 김세진 학생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의사표현을 쉽게 할 수 없는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으셨고 더욱 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더 주위 사람들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감사하며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김세진 양!

평소 학업에 열중하면서 1학년 때부터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를 통해 남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저의 부모님처럼 세상의 힘든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소통이 어려운 이웃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여 영광스런 합격을 하게 되었다.

김세진 학생의 모습이야말로 현대판 심청의 효와 열이 살아 숨쉬는 심청고을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자랑스런 김세진 양의 앞날에 대성(大成)하여 큰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곡성문화원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간절히 바란다.

글/곡성문화원 회원 류재주

‘곡성문화콘텐츠’ 창조지역사업 우수사례 20선 선정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 우수사례 20선에 선정됐다. 총 3년(2015~2017)에 걸쳐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은 ‘심청’의 효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심청의 고장인 곡성군민이라면 심청가의 판소리 한 구절 정도는 부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곡성군민 심청가 배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곡성할머니인형극단’을 창단해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지역아동아동센터 등에서 30여 회의 공연을 선보였고, 보성소리축제 등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곡성군민들로 구성된 ‘곡성주민극단’은 심청축제를 비롯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남원연극협회와 교류공연을 펼치기도 했으며, 내년 3월부터는 섬진강 기차마을 공연장에서 상설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심청관련 출판서적 1,000여 권, 심청관련 음반 100여 점 등 심청 관련 자료 7,000여 점을 확보하고 자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글/곡성문화원 팀장 김춘수



군민과 함께 어울려진 곡성문화원의 다양한 행사

"효와 함께 열어나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제16회 곡성심청축제(9. 30~ 10. 3)' 에 곡성문화원의 공연 프로그램이 뜨거운 각광을 받았다. 먼저 과거급제자 행렬은 곡성관내 초, 중, 고 전학생들이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의 문화체험에 참가하고, 여기서 선발된 '과거급제자 107명' 과 옥과중 취타대 30명을 앞세운 '시가행렬 및 상소문' 퍼포먼스를 식전행사에 선보였다. 특히 곡성문화원 여성극단은 "심청황후마마 행차" 를 매일 정기공연으로 진행하여 군민과 함께 어울리고, 축제장 주무대에서 '과거급제자 시상식, 심청 판소리 경연대회, 심청마당극, 제17회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심청축제, 심청자료관 전시' 등 다양한 주제와 의미를 살린 축제 한마당에 묻어나는 큰 환호를 받았다.

글/곡성문화원 간사 이옥희



▼ 과거급제자 행렬(군청 곡성읍 시가지)



▼ 과거급제자 상소문 낭독(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 과거급제자 시상식



▼ 심청 황후마마 행차



▼ 여성극단 곡성 마당극 심청전 공연



▼ 곡성군민 심청가 부르기 경연대회



▼ 제17회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 심청축제 심청자료관 전시



곡성문화원 충북옥천, 충남아산 문화유적 답사



성역(聖域)의 현충사

2016.11. 10 아침 찬 기운을 헤집고 전통과 현대문화를 향유하고자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 회원 64명은 버스에 올라 충북 옥천·충남아산으로 향하였다. 약 3시간 가량 달려 도착한 '옥천향수 한우타운' 맛집에서 푸짐한 한우와 점심을 들고 매월 5, 10일장이서는 시끌벅적한 인근 옥천 5일장으로 발길을 옮겨서 시장 구경을 하였다.

교동리 옥천향교와 떠밀린 한산한 삼정승택



옥천교동 삼정승택

첫 탐방지 옥천 교동리(향수길) 옥천향교는 1398년(태조 7)에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로 중건되고, 1961년에 복원하였으며, 1966년과 1974년에 보수하였다. 대성전에 들려 김학근 전 원장님, 조덕기 전교님을 비롯 곡성의 유림들께서 함께 배향하였다. 유창한 문화해설사는 풍수지리상 명당에 자리한 집으로 알려진 향교 인근의 한산한 옥여사의 생가를 답사하였다. 조선 초기 김정승이 처음 지은 이후 송정승, 민정승 등 삼정승이 살았던 집으로 1918년 부친 육종관씨가 고쳐 지은 집으로 옥여사가 유년과 학창시절을 보낸 집터 자

체가 충북도 기념물(123호)이다. 원래 조선 후기에 지어진 99칸의 거대한 전통 한옥인데, 옥천군이 37억 5천만 원을 들여 2011년 5월 복원후 매년 20만 명이 찾았으나, 답사할 당시에 내리는 눈치 없는 보슬비 탓에 마음을 여미었다

멈춰버린 시간 속의 시인에 문학관

옥천 정지용 시인의 마을은 시어가 쓰여 있는 도로명부터가 향수길로 표기된 가게 간판과 벽화들을 보는 재미도 솔솔 한 시인의 생가에 왔다. '정지용'은 한약상인 부모의 4대독자로 1902년 5월 15일 출생 '김소월', '한용운'과 나란히 했던 분이다. 1996년 복원된 생가와 돌담밖에 흐르는 실개천이 시제인 '향수(鄉愁)'는 시골 정서를 연상케 하고 유년시절의 추억과 고향 동경을 엮은 대표작에 특별한 감흥을 느낀다. 그리고 돌다리 청석(靑石) 옆 물레방아 근처에 아담한 단층 건물의 문학관에 들어서면 밀납 인형이 실물처럼 다가서고 시적 향수가 눈에 젖는 시적 발상과 표현에 큰 감동을 느끼면서, 서둘러 숙박지로 이동하였다.

유서 깊은 행궁(行宮)과 성역(聖域)의 현충사

여름이 깔리는 밤하늘에 달은 즐행랑치고 심란한 가을비까지 시작되는데 유서 깊은 충남 아산 온양의 숙박지에 다다랐다. 온양온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1,300년전의 영험한 온천이다. 조선조 임



충북옥천향교 배향

금들이 행궁을 짓고 휴양했었다는 온양 관광호텔에 여장을 풀기가 바쁘게, 잘 차린 고급 뷔페식으로 황제처럼 먹고 정조대왕의 친필을 감상한 뒤 아담한 정원을 산책하는데 눈에 확 뜨인 '온궁로 표지석'에 감회를 느꼈다.

화창한 여정 둘째 날이라 아름다운 수목과 역사적 의미가 깃든 충남 아산 현충사에 당도하여 단체 기념사진 부터 찍었다.

현충사는 충무공이 서울서 이사하여 어린 시절 무예를 익히고 무과에 급제 할 때까지 사시던 곳이다. 순국하신지 108년이 지난 숙종32년 (1706년)에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으로 충무공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그 뒤 온 겨레의 정성으로 1932년 사당을 다시 세우고, 광복 후에는 매년 4월 28일에 온 국민의 뜻으로 탄신 제전을 지내고 1966년부터 1974년까지 대통령의 성역화 사업을 한 현충사 사당에 경건하게 배향하고 너무 아름다운 경내 이곳 저곳을 답사하며 수목 풍경을 사진에 스크랩 하였다.

조선시대 정경으로 살림하는 민속마을



조선시대 정경 외암리

아산 외암마을은 500여 년 전 예안 이씨 일가가 자리를 잡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민속자료 제236호)와 주차장에 하차하였다. 외암 마을 입구는 장승을 시작으로 조선시대를 옮겨 놓은 돌담길이 총 5.3km에

달하고, 디딜방아와 초기지붕, 충청 고유의 고택과 기와집들이 관광객을 맞는다. 외암 60여 호는 기와집(중요민속자료) 참판역과 아산 건재 가옥(도지정문화재)의 문헌판각은 눈여겨 볼 문화유산이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는다.

또 이곳은 영화<취화선>, <태극기 휘날리며>, 드라마<덕이>와 <아인시대> 등의 촬영지라 관광객 유치에 한 몫 하여 생겨난 '저자거리'에서 감칠 맛 도는 수구레국밥으로 점심을 들면서 우리 곡성의 영화, 드라마 셋트장이 오랫동안 보존 못한 기삿거리가 입에 오르내렸다.

밀마루 타워에 오르면 세종 신도시가 한눈에



세종시, 밀마루 타워

낮은 산등성이라는 '밀마루 전망대'는 연기군 남면 중촌리의 해발 98m, 높이 42m 이다. 행정복합도시와 '승천하는 용'을 형상화한 길이 3.5km의 웅비한 정부청사까지 360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탐방지 밀마루 타워에 올라서면 품격 높은 세종시가 한눈에 확 트였다. 도심을 흐르는 방축천 19개와 실개천 3개를 배치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자연석 폭포, 음악분수, 부조벽화 등 다채로운 명소는 과학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축과 사람이 어울리는 미래 도시, 곳곳에 볼거리, 즐길 거리, 풍성한 세종시 면면의 여행은 다음을 기약하며 1박2일 최종 답사지 문화기행을 마무리하는 귀향길에 올랐다.

글/곡성문화원 편집인 빙신호

訪顯忠祠 (방현 충사)

從軍往蹟 記中明(중군왕적 기중명)
今日初深 訪問情(금일초심 방문정)

梅谷先人 靑眼對(매곡선인 청안대)
權邦名將 白衣行(근방명장 백의행)

忠心蓋世 誓倭滅(충심개세 서왜멸)
義氣衝天 聖主迎(의기충천 성주영)

魚海家留 經月半(어해가류 경월반)
詞碑紀念 慰公成(사비기념 위공성)

백의중군 지난자취 난중일기 분명하고
오늘 처음 방문하니 옛날의 정이네

매곡의 선인들은 청안으로 대하고
대한의 명장으로 백의를 걸었네

충성의 마음 세상 덮어 왜적멸하고
의기는 충천하여 성주께 환영했네

어찌해 집에 한달 반만 머물렀고
사우비 세우고 충성위로 했네



梧鳳 鄭得采

글: 곡성문화원 회원, 국사편찬위원 梧奉 정득채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글짓기 부문(대상)

아빠의 어깨



충북 충주 주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수정

우리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가스 배달을 하셨다.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가스통을 오로지 어깨로만 지고 나르셔서인지 아빠의 오른쪽 어깨에는 아주 크고 깊어서 아무리 세게 때리고 찢러도 고통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딱딱한 굳은살이 생겨버렸다.

내가 1학년 때 초등학교를 처음 간 날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초등학교 졸업식 날 까지 탈 줄 모르는 가스통을 실은 트럭을 햇수로는 6년째 타고 등교하고 있다.

처음 1학년 때는 가스차를 타고 등교한다는 게 좋았다. 마냥 어린 마음으로 남들과 다른 모양의 차라서, 다른 차에는 없는 가스통을 가득 싣고 있어서...

방지 턱 위를 달릴 때마다 들리는 가스통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아빠 차가 신기했고 멋있어 보이기만 했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이 되고 1살이 많아질수록 가스배달을 하는 아빠가 부끄러워졌다. 학교가 끝나고 문구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을 때 아빠를 보면 모르는 척 지나갔다.

길가다가 배달하는 아빠를 보면 내가 혼자 있던 친구들과 있던 아빠가 날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뒤돌아서 걷기만한 적도 있었고 가스 차에 타있는 게 부끄러워서 창밖으로 보이는 친구들을 볼 때면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었다.

어쩌다 한번 아빠 옆 조수석에 앉아 같이 배달을 할 때 무거운 가스통을 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1학년 때의 나와 1년이 지난 나의 모습이 참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1학년 때 처음 본 가스통을 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해보였고 멋있었고 내가 힘들 때면 언제나 달려와 줄 것처럼 들킨 듯했다.

그런데 겨우 한 살 더 먹었다고 나는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달라 보이고 어느 샌가 아빠를 동정하고 있었다. 1년 사이에 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래보다 사춘기가 빨리 왔었던 내가 아빠한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릴 때는 그 투정을 다 받아 주셨고 나에게 필요 없는 관심도 주지 않으셨다.

내 기억 속 아빠는 사춘기 시절 나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학년이 된 나는 더 이상 가스배달 하는 아빠가 부끄럽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너희 아빠 가스 배달하셔?" 라고 물을 때면 자신 있게 "응, 가스 배달하셔."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가스 배달하는 아빠를 숨기지도 않는다.

이제는 내가 철이든 건지 잠들어 있는 아빠가 덮고 있는 이불 밖으로 뛰어나온 굳은 살 박힌 어깨를 덮어주기도 한다.

이제 나에게겐 아빠의 오른쪽 어깨의 굳은살이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나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그림 부문(대상)



대구시 학남초등학교
1학년 2반 최지훈

목욕탕



제17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수상을 축하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대상 효(孝) 주제 공모- 글짓기부문 115명 · 그림부문 2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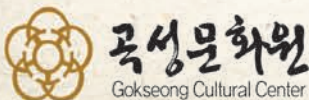
글짓기부문 수상자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이수정(충주 주덕초)
- 금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유연희(충주 동량초)
- 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한기찬(오산대원초) ■ 은상 | 전라남도지사상 ▲손지호(온양온천초)
- 동상 | 곡성군수상 ▲최원이(오성초)
- 동상 |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김나영(광명광성초) ▲강규빈(안산 시곡초) ▲정혜원(충주 국원초) ▲양예준(계성초) ▲홍채원(풍기초) ▲김은후(광주삼육초) ▲김상현(사천동성초) ▲김민재(풍기초) ▲박성연(대전한석초) ▲최연우(순천용당초) ▲이은교(광주삼육초) ▲오채원(대구외릉초) ▲이정민(매곡초) ▲박사정(광주용두초) ▲전사령(울산 천상초) ▲김태웅(용인 안남초) ▲안재희(곡성중앙초) ▲노연경(명정초) ▲이서윤(격동초) ▲김서진(하백초) ▲김자수(상륜초) ▲신민지(상탑초) ▲김민서(세종 연양초) ▲김한별(서정초) ▲주은진(곡성중앙초)
- 장려상 | 곡성문화원장상 ▲박소정(부산 신도초) 외 84명

※ 자세한 문의 곡성문화원 홈페이지 : <http://www.gs-culture.or.kr>

그림부문 수상자

-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최지훈(대구 학남초)
- 금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성승빈(천안성정초) ■ 금상 | 전라남도지사상 ▲최승환(학사초)
- 은상 |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이찬형(인천부개초) ■ 은상 | 곡성군수상 ▲김정우(광주송원초)
- 동상 | 곡성문화원장상 ▲박영권(평택부용초) ▲윤서진(염주초) ▲김시윤(외도초) ▲나유선(외도초) ▲오지우(대전정림초) ▲이서은(명촌초) ▲안나경(광주새별초) ▲신민수(충주금릉초) ▲함승환(광주 운천초) ▲장준혁(대전 옥계초) ▲김성민(달천초) ▲김서희(광주신창초) ▲임지원(광주 정덕초) ▲전지민(온양풍기초) ▲김바다(충주 금릉초) ▲성시우(온양풍기초) ▲노하윤(광주새별초) ▲임해진(송정초) ▲정연호(온양풍기초) ▲박소은(천안성정초) ▲김나희(대구 학남초) ▲김경진(신흥초) ▲황준서(전주 오송초) ▲김근우(사수초) ▲이하람(충주 금릉초) ▲박은희(신흥초) ▲이민건(전주 오송초) ▲김소빈(전주 송북초) ▲강정현(서울용마초) ▲곽준서(의령초) ▲박은유(문장초) ▲이지민(신흥초) ▲채지민(충주 성남초) ▲이준호(온양풍기초) ▲우진미(범산초) ▲엄태안(서울용마초) ▲조수빈(월락초) ▲김영은(대도초) ▲홍기주(충주 금릉초) ▲박유진(예산 금오초) ▲정재윤(서울용마초) ▲박도은(전주 송북초) ▲김현지(부산 초읍초) ▲전지현(전주 오송초) ▲배재홍(부산 초읍초) ▲박하은(학사초) ▲채 린(한동글로벌학교) ▲서혜인(청초미술 홀스클럽)
- 장려상 | 곡성문화원장상 ▲정혁진(순천 용당초) 외 152명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곡성문화센터 3층)
문의 전화 061) 362-0890 팩스 061)363-7300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곡성군의회



곡성군의회(의장 이만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 등 총 3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기 위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군정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각종시책과 현안사업 등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곡성영재교육원 지질탐구 및 난대림 체험학습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찬주)은 곡성영재교육원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과 완도에서 지질학적 호기심 및 탐구력 향상을 위해 지질탐구와 난대림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에서 지질 탐구와 공룡발자국 화석을 통한 공룡의 생활 탐구 및 공룡 화석 발굴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완도 수목원에서는 아열대 희귀식물을 관찰하고 주변에 자생하는 난대림 숲을 탐방했으며 자작나무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학습도 운영했다.

죽곡토란작목반 선진지 견학 나서



곡성토란 재배의 주산지인 죽곡면의 토란 재배농가 50여 명이 최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토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토란 재배농가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연계협력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단과 농업인이 함께 곡성군 토란산업의 발전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곡성경찰,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전개



곡성경찰서(서장 김영창)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현장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연말 연시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시간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학교주변 운동장 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에 진출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중점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동입상(靑銅立像) '평화의 소녀상' 제막



곡성평화의 소녀상건립군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류종표)는 지난해 10월 7일 일제강점기 만행에 끌려가 피맺힌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소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아 곡성레저문화센터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다.

곡성 관광택시 심진강변 누빈다



이제는 곡성의 명소를 관광택시로 편하고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9대의 관광택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관광택시'는 전용콜센터(1522-9053)와 홈페이지를 통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행되고, 요금은 시간운임제(3시간/6만원)로 대절요금을 적용하며 각종 통행료와 주차요금은 별도 지불해야 한다. '섬진강 기차마을'을 비롯 '섬진강 침실습지', '대황강 출렁다리' 등 곡성의 숨겨진 명소를 둘러보고, '참게 수제비', '석곡 흑돼지' 등 이색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등 친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제2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 공모

곡성문화원에서 곡성군 경로효친의 실천과 문화예술교육에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2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은 효행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등 4개 분야로 군민의 귀감이 되는 곡성군민 또는 곡성을 연고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및 개인입니다.

1. 추천부문

부문	인원	추천대상
효행부문	각 부문별 1명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며 우리 민족 전통의 “효”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부문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부문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며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교육부문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곡성 교육 발전에 앞장서며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2. 시상내용

- 각 부문별 선정된 분에게는 상장과 상패 수여

3. 추천서 접수 및 선정

가. 후보자 추천자격

- 각 부문 : 곡성군 기관 · 사회단체 또는 곡성문화원 회원 추천

나. 접수기간 : 2017년 1월 16일(월) ~ 2월 15일(수)까지

다. 접수처 : 곡성문화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061) 362-0890 / 팩스(061) 363-7300

이메일 gs0890@kccf.or.kr

4. 제출서류

가. 추천서, 공적조서 및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추천서는 곡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s-culture.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발표

가. 2017년 2월 末 곡성문화원홈페이지 (<http://www.gs-culture.or.kr>)

발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나. 2017년 3월 中 시상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킴과 군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곡성문화원 문화예술 진흥 주요 추진 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저명 문화예술인 초청 강연회
- 초 · 중 · 고 학생 진로 멘토와의 만남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우리 가락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 부르기 대회
- 곡성효문화상 공모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곡성 자연환경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곡성사랑체험활동
- 곡성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곡성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우리가락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판소리 교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운영 독서교실
- 청소년을 위한 곡성 바로 알기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학교 제 2의 푸름이 청춘예찬 공예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골짜골짜 문화재 찾기 프로그램 운영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지역 향토자료 조사 및 역사마을 만들기
-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실천 사례 발굴
- 곡성문화 소식지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 · 홍보
- 향토자료 발간
- 곡성 & 심청스토리 공감 자료관 조성 사업
- 나라사랑 민족사랑 호국보훈 지킴이
- 골짜나라 문화재 지킴이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 주민극단 마당극 심청전 여성극단 운영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협력사업
- 애 가고 싶은 곡성 우리 모두 홍보대사
-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 탐방 체험

